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위해 7월 총파업” 1일 노동절 전국 14곳 집회 … 내란 세력 청산·87년 체제 극복 실현 선언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13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결의했다. 또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를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87년 체제를 극복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서울 대회 3만여 명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 명이 노동절 대회에 참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회에서 노동법 개정과 노동자 권리 확대를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차별과 착취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라고 목소리 높였다. 양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7월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내란 세력 청산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주요 과제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은 파면됐을 뿐 아직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 내란 세력, 반노동 극우세력, 검찰 독재 권력자가 권력을 탐하고 있다.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투쟁에 노동자 민중이 나서야 한다. 조직 노동자 힘을 다시 보여주자” 라고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투쟁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평등·평화·민주헌법 쟁취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낡은 정치체제를 바꾸겠다” 라며 “기후위기·차별·혐오 해소, 자주·평화와 정치·경제 개혁 실현 등을 통해 사회 근본을 뒤엎는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서울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장소인 태평로를 출발해 시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김형수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한화오션 본사 앞 고공 농성장을 지나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최창섭 노조 경기지부 이앤에스지회장과 김정봉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행진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최창섭 이앤에스지회장은 이앤에스 투쟁 상황을 설명했다. 최창섭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사측의 노조 탄압, 불성실 교섭,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앤에스 사측에 빠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앤에스는 삼성전자 화성·기흥공장에서 웨이퍼(반도체 얇은 판) 용기를 세척하는 업체다. 이곳 노동자들은 지난 8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최창섭 지회장은 원청 삼성전자에 태도 변화와 책임 이행을 주문했다. 최 지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갖고 있다. 최 지회장은 이앤에스 사측이 노동자 단결권을 방해하는 등 해당 규범을 계속 어기는데도 삼성전자가 모른 척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정봉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를 요구했다. 주얼리분회 조합원인 김정봉 부지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자 권리를 더 제대로 보장해야 하는데, 법은 이들을 오히려 예외로 만들었다. 제도를 악용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업주가 많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온

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라고 외쳤다.



김정봉 부지회장은 “한국 주얼리 산업 역사가 100년을 넘는다는데, 주얼리 노동자들은 2025년 지금도 여전히 청산가리 증기를 마시며 화공약품에 노출된 채 일한다. 직장 건강검진, 노동안전 교육은 꿈도 못 꾸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억울하게 잘려 답답한 마음에 노동부 찾아가도 공무원들은 자기 일 아니라고 발뺌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정봉 부지회장은 행진 차량이 지나는 종로 3가를 가리키며 서울 종로구가 국내 주얼리산업 최대 집적지라고 설명했다. 김정봉 지회장은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서야 5월 1일 노동절에 쉴 수 있었다”라며 “이제 시작이고 노동조합 할 일이 많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해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기간연장

금속노조 조합원 쇼츠 공모전

4.14 MON - 5.19 MON